



5면

'한·미 청소년 글로벌 교류사업' 추진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바이오·방산·모빌리티 방향성 잡다

라스베이거스·보스턴 등
김 지사, 美 3개 도시 강행군
최첨단산업 분야 현황 체험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밀그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열린 라스베이거스와 보스턴을 잇는 미국 5박 7일간의 강행군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지사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산업 분야의 현황을 체험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밀그림을 그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9일(현지시간) CES 전북공동관을 방문해, 전북지역 8개업체가 전시한 제품을 직접 써보며 관계자들과 해외 진출과 계약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광 관련 신기술을 가진 업체, 유전자 등을 활용한 패치 저울 업체, 화학차 등의 이동상황 추적 기술관련 업체 제품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체 사장에게 판로 노하우와 직접 1대1 코칭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10일 CES내 구글 부스를 방문해서는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통역 없이 궁금한 점을 영어로 직접 물어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국서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와



지난 12일(현지시간) 김관영 도지사 일행은 코로나19의 백신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급부상한 '모더나'를 방문해 패트릭 벅스테드 총괄부사장 등과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과 신약개발 등 의약품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미팅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철규 전북대 부총장, 김관영 도지사, 패트릭 벅스테드 모더나 총괄부사장,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건강식품을 전국 유통하는 '홍소광월드'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 계약을 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해 한남체인, H마트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3번째로 도내 농수산물제품의 미국 내 판로 개척과 현지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1일 미국 텍사스주를 방문, 텍사스주 투자설명회를 하고 플레이노시 존먼스 시장과 만나 양(兩)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해 환담했다.

(관련기사3면)

현지 공식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세계 명문대학으로 보스턴에 위치한 MIT에서 진행된 MIT-전북대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로 글로벌 제약회사인 모더나 보스턴 본사를 방문, 패트릭 벅스테드 총괄부사장을 만나 전북도가 올해 강력 추진할 바이오 산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도가 적극 육성할

최첨단 핵심전략 산업 분야인 바이오와 방산 분야의 인목을 크게 키우는데 계기가 됐다.

김 지사는 "이번 CES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 또한 전북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5박7일간의 강행군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전북도가 적극 키울 바이오와 방산,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영감과 방향성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장재훈 기자

국내 최초 지구 재진입 열 보호체 개발 나섰다

전북대 최성만 교수팀, 스페이스챌린지 2단계 연구사업 선정... 2년간 10억 지원
1단계 연구서 소재 개발 시험평가 성공

전북대학교 최성만 교수(항공우주공학·사진) 연구팀이 국내 최초 대기진입 우주 비행체 보호를 위한 열 보호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샘플귀환 지구 재진입 우주 비행체 모델.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에 따르면 1단계 연구에서 최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소행성 등의 우주탐사에서 획득한 샘플을 지구로 재진입하는 샘플귀환 지구 재진입 비행체 연구를 2년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지구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고열 조건에서 샘플을 보호하는 열보호체 소재 개발 및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세계적 전문 연구소인 독일 IRS에서 열유속 5.60 MW/m²에서 100초간 실험을 통해 열 보호체의 내구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1단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 교수팀은 2025년까지 2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0억 원을 지원 받아 추가 연구에

나선다.

최 교수팀은 1단계에서 개발한 초고온 열 보호체를 활용해 우주 탐사 로켓인 누리호 등에 탑재하기 위한 체계적용 연구를 페리저 에어로스페이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최성만 교수는 "1단계 연구사업을 통해 극한의 고열 조건에서 샘플을 보호하는 열보호체 소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구성도 입증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에 적용해 국내 우주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도교육청, 18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출범 앞두고 비전·슬로건·심볼 변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비전, 슬로건, 심볼마크(CI)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실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의미하고, '인성'은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갖춰야 하는 핵심 가치·덕목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사진 왼쪽부터), 심볼, 슬로건.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 주어진 교육 자치권을 확대해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교육을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은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심볼마크는 학생들이 성장하며 미래

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면의 얼굴 이미지는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며 배움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펼칠수록 확산하는 책의 이미지는 학생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감을 상징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기치로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의 당면 과제와 교육 가족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전주시 "문자 받을 시 관할구청 청소위생과로 알려야"

전주시가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투기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

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할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무심코 링크를 누르는 대신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